

‘불심 제일 도시’의 ‘겉과 속’

현익채 법사 ‘간추린 부산불교 50년사’ 발간



보고서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30년 전 <부산대학불교교연합회 10년사>를 편찬한 후 꾸준히 부산불교의 현황을 파악 자료화에 주력해온 현익채(금정중 교법사·사진가 11월 5일 펴낸 <간추린 부산불교 50년사>의 자료에서 드러났다.

84쪽 분량의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불교 단체의 변천을 도표로 정리한 자료.

시대적 변천을 수치 변화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표에서 나타난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등의 현실은 충격적이고 비판적이기까지 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3년, 54개였던 어린이회는 2005년 10월 현재 22개로 절반 이상 대폭 감소했으며 76개였던 중등학생회는 41개로, 대불련은 22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고등학생회의 경우, 학교 분회가 파라미터 활동을 통해 전국에서 가

1500명의 회원을 자랑했으나 현재 106명으로 격감. 향후 대불련의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부산 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과 신도교육은 상당히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분야는 복지시설 및 기관

부산불교의 명암(明暗)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이 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 해방 이후 대중불교의 가치를 들고 대각사에서 1949년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것을 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약 50년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과 부산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함으로써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특히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자랑하는 부산불교의 현황 파악을 통해 전국 불교의 현황과 추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부산불교의 전반적인 흐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현익채 교법사가 <부산불교 총람> <부산불교계 인명록> 등을 펴낸 이후 또 다시 발로 뛰는 조사를 벌인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히 할 수 없는 자료라는 평이다.

현익채 교법사는 “앞으로 시대에 걸맞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교사 양성 등 종단과 사찰의 지속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있어야 어린이회, 청년회 등 불교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echoe@buddhapia.com

어린이·학생회·청년회 감소폭 ‘아찔’

회원 격감 대불련은 존립 자체 위협

지도교사 양성 등 지속적 관심 절실

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어느 정도 그 맥을 유지하고 있던 어린이회, 학생들의 신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찰 분회 등의 경우 범어사 중학생회, 해원정사 고등학생회, 한마음선원 학생회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대불련의 경우, 1990년대에는

과 불교교육기관, 불교합창단. 1993년 5개에 불과했던 복지시설 및 기관은 2005년 10월에 이르러 29개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16개에 불과했던 교육기관도 52개로 늘어났다. 불교합창단의 경우도 18개에서 37개로 늘어나 음성 포교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선불교 진면목 알리는 도량될 것”

부산 안국선원 11월 6일 이전개원법회 봉행



산광역시,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김광삼 분사 사장 등 1만여사부대중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수불 스님은 인사말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원력으로 3년여 불사 끝에 새 선원건물을 개원하게 되었다”며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다함없는 정진을 이어가 세계만방에 선불교의 진면목을 알리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02년 4월 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 3월 착공, 2년 6개월여만에 완공 개원한 부산 안국선원은 210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문을 활짝 열었다.

1989년 10월 금정포교당을 모체로 출발한 안국선원은 1993년 9월 가야동 안국사로 이전한 이후 재가 불자들의 선수행 도량으로 자리매김해 왔다.(051)583-0993

천미희 기자

동화사 대웅전 옛모습 되찾아

2년 불사 회향... 염화실 종각 낙성 및 범종 타종식



1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대구 동화사 대웅전(대구시 유행문화재 10호)이 약 2년간의 해체복원불사를 마치고 고색장연한 옛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가 11월 6일 대웅전, 조실재 염화실, 종각 낙성 및 통일 대종 타종식을 봉행했다(사진). 간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조실진제, 주지 지성 스님, 유승민 주성영 국회의원, 정장식 포항시장, 이훈 대구시장, 장영관 대구광역시 및 9교구 신도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복원을 축하했다.

배지선 기자

낙성 법요식에서 조실진제 스님은 대장 불사에 동참한 관계자와 신도들에게 한량 없는 공덕을 쌓았다고 격려했다.

동화사 대웅전은 철하와 목재 부식 등으로 원형을 상실해감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들의 안전 진단과 자문을 거쳐 2003년 12월부터 해체복원불사를 시작했고, 총 사업비 9억 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각화사 동암 신축불사 낙성식

경북 봉화 각화사(주지 노헌가) 11월 5일 동암 신축불사 낙성식을, 6일 대웅전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을 각각 봉행했다.

교사 주지 혜승 스님을 비롯한 선방 스님과 불자 등 35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새모습을 드러낸 동암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30여평 규모로 사위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배지선 기자

시민종교대책위 ‘금정산 고속철’ 항고키로

착공 금지가처분 기각에 따라

범어사(주지 대성)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부산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 수석부장판사)는 11월 2일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범어사로 구성된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이하 시민종교대책위)’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수유출 우려와 터널의 안

전성 문제도 설계시 충분히 고려된 사안으로 현재의 국내 터널공학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대량의 지하수 유출사태나 안전성의 문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금정산 산성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금정산의 지하수 유출 문제에 대한 감정이 받아들여져 감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고하기로 했다.

범어사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종교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 교계 불우이웃돕기 풍성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 교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차집과 바자회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반월당 보현사(주지 원일) 다도반이 11월 10일 경내 보현문화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을 개최했고, 한마음선원 대구지원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함께 갑시다’라는 주제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사진).

또 24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외로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향기 담은 하루차집’을 대구 수성구 웨딩 한국관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053)476-6631 배지선 기자

금정구에 ‘종교의 거리’ 조성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발전 2020, 7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범어사 ‘선문화체험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정구청은 금정구에서 불교, 이슬람과 가톨릭 등 세계 3대 종교가 ‘상생의 한마당’을 펼칠 수 있는 종교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금정구청은 금정구 부곡동-오문동 1km 구간의 ‘오문대길’을 ‘순교자의 길’로 개명하고 총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까지 ‘순교자의 거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금정구청은 또 이슬람 부산성원 옆 ‘이슬람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10월 2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 금정구청용 범어사 내 ‘선(禪)문화체험타운’을

연결해 ‘종교문화의 요람, 금정 벨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사)마하야나문화원이(사장 법혜)이 위탁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관장 종영)이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돼 11월 9일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지정서와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6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조직운영 관리, 재무관리, 청소년 이용도, 시설안전 등 10개의 모든 부문에서 모두 상위점수를 받았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3년간 시범청소년수련시설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053) 761-9400 배지선 기자

자비의 통일염원 백일장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홍)는 10월 29일 부산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05 자비의 통일염원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백일장에서는 문정민(예문여고 2년)의 3명이 통일부장관상을, 김민정(예화여고 2)와 3명이 부산시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선작 시상식은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리는 ‘남북학생교류전 및 통일신발후원을 위한 미술전’ 입제식과 함께 열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2005년 정기중앙총회 및 종도대회

을유년 한해 종단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종도제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조 원효성사의 화쟁이념을 받들어 종단의 대화합을 위하여 종도대회를 봉행함과 아울러 2005년도 정기 중앙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도제위께서는 공사다행하신 가운데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2005년 11월 22일 (화) 오후 1시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문 의 : 051)466-0977, 467-3316

2005년 11월 10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최덕산
총무원장 김고산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를 마감하며

94년 개혁종단 출범이후 네 번의 총무원장 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며, 수행자 본연의 모습에 바탕하는 청정선거 실현을 목적으로 승가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후보자와 선거인단의 청정선거실현 서약과 선거 당일 본사에서 출발 결의를 이끌어 내고, 선거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후보자간의 상호 중재자 역할까지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이번 32대 총무원장선거에 있어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울정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총무원장에 당선되신 지관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고 조계종단이 국민과 민족의 든든한 귀의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정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다시 본연의 수행과 포교의 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번 청정선거운동을 통하여 많은 대중스님들의 뜻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 제도의 개선점들을 총무원, 중앙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1. 현행 간접선거를 산중총회법에 준하는 직접선거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2. 후보자는 1개월 전에 모든 공직(말사주지제외)에서 사퇴해야 한다.
3. 후보자는 교구본사주지 2인과 총회의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선거공약제를 실시하여 정책과 선거운동원을 미리 밝혀야 한다.
5. 선거인단의 여비는 종단에서 지급해야 한다.
6. 간접선거일 경우 중앙중무기관 소임자와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권을 금지해야 한다.
7. 중앙선거위원회에 교구본사별 선거감시단을 조직하여, 공명정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총무원장선거에서 금일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주스님과 세민스님은 중앙총회수석부의장직과 호계위원직을 각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들도 일괄 사퇴하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본 승가운동본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